

# 새로운 造景樹(VI)

## — 산겨름나무 —

조 현 제/임업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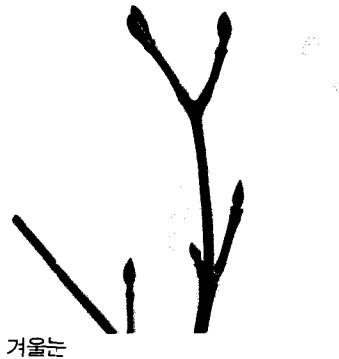
학명 : Acer tegmentosum Max.

영명 : Tegmentosom Maple

한명 : 瓜膚櫟(과부색)

일명 : チョウセンウリタガエテ

산겨름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며 나무높이 15m, 가슴높이 직경 10~30cm로 자라는 낙엽활엽 소교목 내지 교목으로 우리나라 중부이북 해발 500m이상의 고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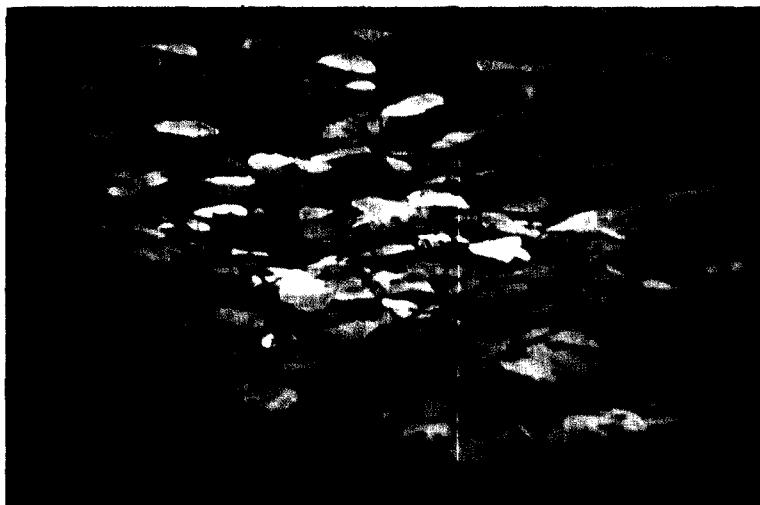


지대의 계곡과 산록에 주로 자생 한다. 지리산 쓰리봉부근에도 분포하며,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지방 및 구소련의 원동지방에 분포한다. 분류 및 생태적 특징을 보면, 잎은 마주나며 잎몸은 넓은 5각형으로 크고 얇게 3~5개로 갈라져 마치 사람의 손바닥 형태를 하고 있다. 꽃은 5월경 가지끝에서 풀빛이 도는 노란색이 10~20개씩 모여 송이꽃 모양을 이루며 아래로 드리워진다. 꽃잎은 5개이며 꽃술은 8개이다. 열매는 시과(翅果) 즉 날개열매 모양으로 둔각 또는 수평으로 벌어지며 9~10월에 익는다.

나무모양으로 줄기는 곧게 올라가고 가지는 원정형(圓頂形)으로 펴지고, 나무껍질은 매끈하고 잣빛이 나는 풀색으로 백색줄이 세로로 나 있어 이국적인 독특한 느낌을 주며, 어린가지는 녹색으로 털이 없으며 줄무늬가 있다.

생태적으로는 깊은산 골짜기에

부분수형



서 풀무레나무, 거제수나무, 사스레나무, 가래나무 등과 같은 큰 나무들과 혼생하여 잘 자라며, 부식질이 풍부한 적윤지가 적지이나 다소 습기가 있는 비옥한 계곡 또는 산중복의 완경사지에서도 잘 자란다. 뿌리는 사출근(斜出根), 수평근(水平根)을 내고 천근(淺根)형으로 발근성이 아주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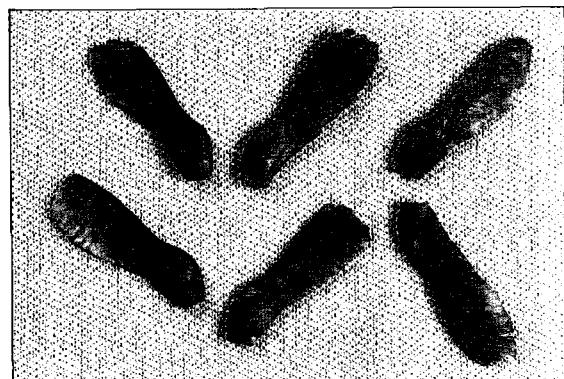
번식은 일반적으로 실생에 의하며,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밀봉하여 저온에서 저장하고 2~3월에 1~5°C로 60일 이상 습충(濕

장치가 있는 온실내에서는 25% 정도 활착한다.

굴취할 경우는 뿌리건조에 주의하고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가지솎음, 전정을 하여 균형을 유지시키고 활착후에는 자연수형을 스스로 유지하므로 별다른 전정이 필요없다.

이 나무는 질기고 단단한 재질 때문에 기구 및 악기재 등으로 사용할 만한하므로 조경적 개발 가치가 높다. 특히, 곧은 줄기와 원형모양의 수관(樹冠), 크고 넓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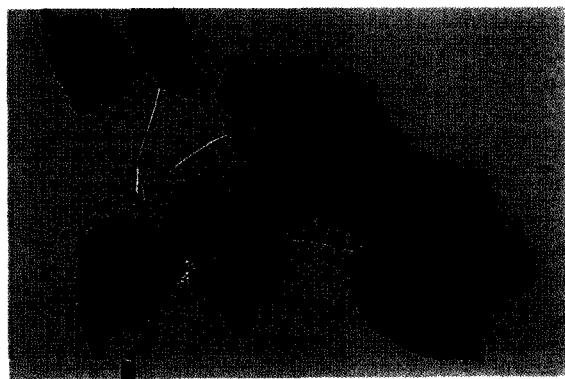
1. 열매
2. 잎
3. 줄기(수피)



1

層) 처리한 후 뿌리면 발아가 잘 된다.

정선한 종자량은 1ℓ당 14,000립 (1kg당 3만립)이고, 파종량은 m<sup>2</sup>당 약 45cc 또는 20g, 발아 기대 분수는 m<sup>2</sup>당 180본, 득묘수(得苗數)는 100본정도로 가을까지 평균 45cm로 성장하며, 이듬해 봄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에 m<sup>2</sup>당 10~15본 정도 옮겨 심어 2년생(1~1묘)로 자라며 1년후 산출한다. 삽목은 노지삽(露地插)은 어렵지만 분무



2



3

깨끗한 잎이 펼치는 녹음(綠陰)과 가을에 노랗게 물드는 단풍이 아름다우며 낙엽진 후의 풀잎색의 나무껍질에 물드려진 흰색 줄무늬가 이색적이어서 정원목이나 녹화수로 적합하다. 또한 자연공원의 경관조성시 금 가장자리의 하충목으로 가꿀 수 있는 몇 안되는 수종으로서 분재로도 이용 가능하며, 병충해도 거의 없어 그 개발 잠재성은 대단히 높다.<sup>11</sup>